



문화재청은 11곳의 별서 정원의 문헌을 고증한 결과 담양의 소쇄원(왼쪽)은 송순이, 식영정은 임역령이 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광주일보 자료>

“소쇄원 이름 지어준 이는 면앙정 송순”

우리나라 대표 민간 원림인 담양의 소쇄원(瀟灑園)은 양산보(1503~1557)가 스승 조광조 유배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의미의 ‘소쇄(瀟灑)’는 그동안 양산보 호인 ‘소쇄옹’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문헌 연구 결과, 소쇄원이라는 이름은 담양 출신 인물인 면앙정 송순(1493~1582)이 지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이 소쇄원을 비롯해 별서 정원 11곳의 역사성을 검토한 결과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담양 소쇄원과 식영정 등의 유래,

문화재청, 별서정원 11곳 고증 ‘식영정’ 이름은 임역령이 지어 송순이, 변천과정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민간원림의 원형을 간직한 소쇄원은 명승 40호로 지정된 아름다운 정원이다. 이곳에는 대봉대와 광풍각, 제월당 뿐 아니라 긴 담장이 동쪽에 걸쳐 있고, 산 사면에서 흘러내린 물이 담장

밑을 통과해 소쇄원의 중심을 관통한다. 정원 내 건축과 조경은 자연과 인공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특히 자연에 대한 인간의 순응, 도가적 삶을 지향했던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 등을 엿볼 수 있다. 천석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따르면 “양산보의 어머니는 송 씨이며, 송순은 양산보 모친의 조카”라며 “양산보에게 송순은 이종 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개 정원의 이름은 스승이 지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소쇄원처럼 서로 교류를 했던 집안의 형이 지어주는 경우도 있다”

고 부연했다. 인근의 식영정(息影亭)은 서하당 김성원이 석천 임역령을 위해 지은 정자다. 고증 결과 김성원이 정자를 세운 것은 맞지만 ‘식영(息影)’이라는 이름은 그의 장인 임역령이 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자가 쉬어가다’는 뜻을 지닌 ‘식영’은 한가롭게 여유자적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김성원이 쓴 시문집 ‘서하당유고’에는 “공이 36세 되던 해인 1560년, 창평의 성산에 식영정과 서하당을 지었다”고 기록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19 백신, 백혈병 유발 근거 없어” 정부, 건강상태 고려 접종 권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백혈병 간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학계의 자문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접종을 받아 달라고 권고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대한혈액학회 자문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했다고 신고되는 백혈병은 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인데 이는 항암제 등 약물로 인해는 보통 수년 뒤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김진석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연세대 의대 교수)는 이와 관련한 영상을 통해 “병인론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수일~수개월 이후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일부 유전적 소인과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 등도 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학회는 또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오히려 미국에서 시행한 역학연구를 보면 소아의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접종 이후 소아 백혈병의 빈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백혈병 발병을 우려하기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연합뉴스

“명랑대첩축제, 온라인으로 즐기세요”

3~5일 오후 2시, 명랑해전 AR체험·라이브 커머스 진행

호국역사문화 축제인 2021 명랑대첩축제가 코로나19 극복의 힐링 메시지를 담아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 주관하는 명랑대첩축제는 ‘별들의 명랑! 호국의 울돌목!’이란 주제로 진행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명랑대첩축제TV’를 통해 매일 오후 2시 송출한다.

올해 축제에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와 희망을 전달하는 비대면 축제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르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여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명랑해전 AR체험’은 명랑대첩 현장인 울돌목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1597년 정유년 승리의 감동을 그대로 담은 증강현실 명랑해전을 볼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명랑대첩축제 누리집(www.mlcd.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제 첫날인 3일 명랑대첩의 의미를 담은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청소년 명랑 가요제, 틱톡 챌린지, 랜선 투어, 퀴즈 열전, 조선수군 무예대회, 이순

신 가무악이 펼쳐진다. 둘째날인 4일 해전재현 영상과 공연 에어쇼, 해상 퍼레이드, 평화의 현화를 담은 축제의 백미인 출정식과 울돌목 온어어 공개 방송, 지역민이 참여한 화오리 명랑 노래방을 진행한다.

출정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김성일 도의회 부의장, 이종천 이순신장군 후손, 명현관 해남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BH 이경운 문화비서관 등이 참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맞춰 최소 인원으로 치른다. 또 다양한 농수특산품 대박 할인제품을 지역 소망물인 남도장터, 해남미소, 진도 아리랑물을 통해 구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이어진다.

마지막날인 5일 진도 군립민속예술단이 출연하는 남도 민속여행과 인플루언서 랜선 투어, 유튜브 콘테스트 등이 마련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진행된다.

‘명랑대첩축제TV’ 채널 구독 및 출정식 시청 이벤트, 실시간 댓글 이벤트 등 축제 참여자에게는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진 ‘푸소 체험’ 홈쇼핑서 만나세요”

5일 GS홈쇼핑서 농촌체험, 호텔·리조트 숙박상품 판매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를 지원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남장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TV홈쇼핑 채널에서 농촌체험과 숙박 상품을 판매한다.

생방송 판매는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매체인 GS홈쇼핑에서 이뤄진다. 강진 푸소(FUSO)체험 1박2일 농촌체험상품과 도내 호텔·리조트 숙박상품을 판매한다.

푸소는 기분은 더욱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확 줄인다(Feeling Up, Stress Off)는 의미다. 강진 푸소 체험은 포근하고 인심이 가득한 농촌집에서 허룬 밤을 보내면서 훈훈한 정과 감성을 경험하는 여행 상품이다. 일반농가의 밥상을 맛보고, 주변 가우도 즐긴다. 다산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다. 목포 유달산과 섬·바다의 풍경을 짜릿하게 즐기는 목포케이 블가도 있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서울 용산역, 교대역 등에서 매일 우등버스를 운행한다. 호텔·리조트 숙박상품은 여수 베네치아호텔&리조트, 광양 호텔라희, 짜릿한호텔 목포, 금호리조트 화순점 등으로 구성했다. 판매 가격, 고객 응대 및 혜택



강진 농촌체험여행 숙박지. <전남도 제공>

등을 심사에 참여업체를 선정했다.

전남 호텔·리조트 숙박상품 운영업체는 부대시설 이용 할인과 객실 상향, 무료숙박권 경품 제공, 주변 관광지 및 체험시설 등과 연계한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GS홈쇼핑 방송일인 5일 생방송을 시청하거나 온라인 GS홈쇼핑 쇼핑몰(www.gsshop.com) 또는 GS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업계가 침체하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TV홈쇼핑 관광상품 판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투자, 하실분

- ▶ 덕남동, 빛고을 전대병원 인근
- ▶ 임야 661㎡(구 200평) 지분매매
- ▶ 장/단기 개발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000만원(평당 30만원)

중개환영.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동남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양 이재근(630906-XXXXXX)
- 최후주소 : 광주 서구 동림2지구길 17-1 102호 (동원동)

피상속인 양 이재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원 2021년 8월 19일로 신청하여 2021년 8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음에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9월 5일

- 상속인 : 이지예(010522-XXXXXX)
광주 북구 동문대로249번길 19 104동 2402호
(각화동, 센트럴파크서브스타힐스)
- 신고기간 : 2021. 9. 3. ~ 2021. 11. 12.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주소지

<p>光州日報 지국안내</p>	
<p>북 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p>동 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장 222-8171
<p>남 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p>서 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동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p>광산 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p>光州日報 kwangju.co.kr</p> <p>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p>